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이 은 영**

경남은광학교

신 진 숙***

창원대학교 특수교육과

《 요 약 》

본 연구는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3개 시·도의 지적장애 중·고등학생 총 37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자료로 기초통계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관계는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경로 간 영향을 미치는 강도는 사회적 관계가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적응유연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사회적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급별 구조적 관계는 사회적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나머지 경로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배치유형별 구조 관계에서는 모든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함께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지적장애,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학교생활적응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 교신저자 (sjsj5031@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학교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다.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기의 성장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교생활적응은 외적인 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여러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그리고 적응유연성 등의 요인이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영춘, 정민숙, 2012; 이경복, 2006; Bronfenbrenner, 2005).

먼저 사회적 관계는 한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관계 형성을 의미한다(Lerner et al., 2009).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Bronfenbrenner, 2005), 특히 부모와 함께 학교생활에서 마주치는 교사와 또래들과의 관계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사회적 관계라고 볼 수 있다(Wang & Eccles, 2012).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가 환경적인 외적 요인에 가까운데 반해,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은 개인 내적인 요인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평가적인 신념으로 개인 자신이 지각하는 가치감이며,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한 필수적인 심리적 역량이다(백혜정, 환혜정, 2005).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감과 인내심을 가지고 과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기순, 2017).

그리고 적응유연성은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어려움, 정서적 붕괴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역량으로, 개인에게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개발 가능한 요인이다(이경복, 2006). 보통 적응유연성이 높은 학생은 학교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학업에 대한 책임감을 나타내며, 교사와 또래 관계에서도 강력한 지원망을 형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일반교육 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하여,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김영춘, 정민숙(2012)은 사회적 관계가 학교생활적응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전연이(2006)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다미(2015)는 적응유연성이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적응유연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와 교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학교생활 전반에 적응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반교육에서의 연구 흐름에 발맞춰, 특수교육 장면에서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현주, 이동영(2011)은 시각장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적응유연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동희, 박승희(2008)는 사회적 관계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성을 보고하였으며, 김광혁, 김예성(2008)은 적응유연성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구조적 관계를 도출하였다.

2015년 장애인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에서 전체 장애 고등학생 중 비(非)입학, 중퇴나 퇴학 등과 같이 학교를 이탈한 경우가 절반에 육박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약 80%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장애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상황을 반영할 때, 특수교육 영역에서의 위와 같은 연구 경향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의 효과적인 학교생활적응 방안을 도출해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지적장애를 포함하는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아직까지 부족하다.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는 인지적, 정서적인 발달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하여 일반학생들에 비해 학교생활적응에 전반적인 어려움을 나타내며, 학업적, 사회적 고립이라는 취약한 특성을 가진다(Al-yagon, 2013). 아직까지 인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감각장애 등의 영역에서도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연구가 충분히 수행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교육부, 2017)과 인지적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적응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할 때,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생활적응과 관련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해 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하나 혹은 두 가지 요인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도출해보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다(나용기, 김기룡, 김삼섭, 2012; 이원령, 2017). 반면에 앞서 제시한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등을 포함하는 개인의 내·외적인 요인 전반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다각도로 파악해 본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로 인해서 다양한 요인들 간의 복잡한 관계와 경로를 실증적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경로를 기반으로 한 교육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는 아직 어려움이 따른다.

셋째, 일반교육에 비해서 특수교육은 배치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배치형태별로 학교생활적응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2017년 특수교육통계(교육부, 2017)에서는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교육적 배치유형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등으로 구분하여 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은 특수학교에 34%, 특수학급에 55%, 일반학급에 9%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적응관련 선행연구는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처럼 하나의 배치유형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장현민, 허유성, 2016).

넷째,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학교 급별 구조적 관계에 대한 비교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못하였다. 2017년 현재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은 중학교에 23.8%, 고등학교에 29.1%가 배치되어 교육을 받고 있다(교육부 2017). 일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적응 연구에서는 학교 급별로 구조적 관계의 구체적인 양상이 다르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문은식, 2011). 그러나 아직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급별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한 구조적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반영하여,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인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며, 관련 변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인과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학교 급별(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적 배치유형별(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학교생활 적응의 4가지 주요변인들의 구조모형 분석으로 어떠한 경로가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다양하고 상세하게 보여줌으로써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긍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경로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 변인(성별, 학교 급별)에 따른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학교 급별, 배치유형별 구조적 관계의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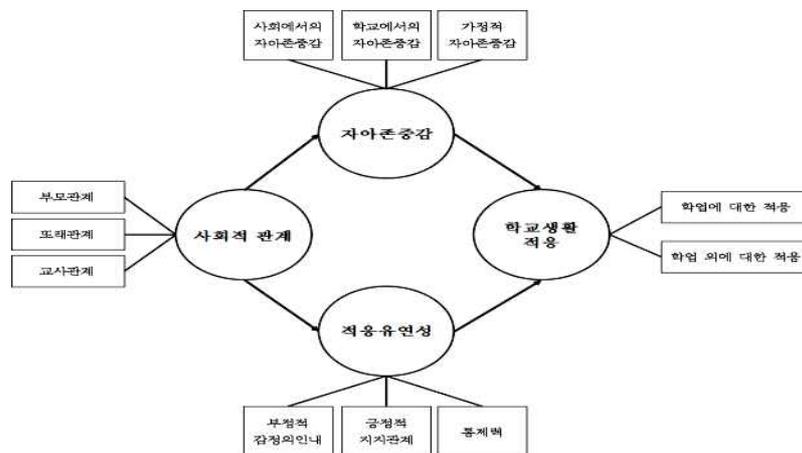
이 연구의 대상은 전국 3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이었다. 최초 430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실시되었으나, 응답이 불충분한 55명의 응답을 제외한 375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배경변인별 특성은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75)

배경변인	구분	빈도(명)	퍼센트(%)	배경변인	구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학생	221	58.9	거주 지역	P시	149	39.7
	여학생	154	41.1		U시	130	34.7
학교 급	중학교	184	49.1		K남도	96	25.6
	고등학교	191	50.9		양부모	239	63.7
배치유형	일반학급	74	19.7		편부모	88	23.5
	특수학급	189	50.4		기타	48	12.8
	특수학교	112	29.9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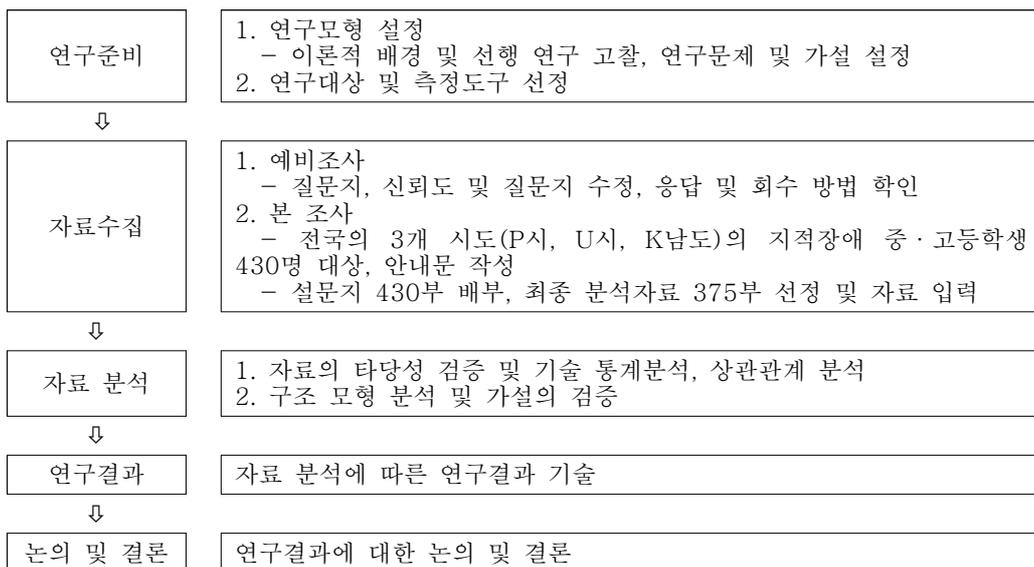
3. 연구 절차

1) 예비조사

본 연구조사에 앞서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특수교육전문가 박사 과정 3명, 특수교육 경력 10년 이상의 특수교사 3명,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학과 교수에게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그 이후에 지적장애 중·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나 목적이 맞지 않은 문항은 없는지를 확인하였다.

2) 본 조사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학교생활 적응과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대상 선별을 위해 전국의 3개 시도(P광역시, U광역시, K남도)의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조사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 및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 협조를 구하였다. 그 이후에, 온라인 설문지 및 메일을 통한 설문지를 발송하여 온라인상에 입력하거나 전송받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그림 2] 연구의 진행절차

설문은 기본적으로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이 스스로 응답하였다. 다만 독해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담당 교사가 질문을 대신 읽어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어휘의 뜻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손의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해 직접 입력이 어려운 학생은 담당 교사가 입력에 도움을 주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지적장애 중·고등학생 375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보다 세부적인 연구의 진행절차는 위의 [그림 2]와 같다.

4. 측정 도구

본 연구의 구조적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적응유연성 척도,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을 사용한 김선아(201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선아(2012)의 척도는 부모관계, 교사관계, 교우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사회적 관계 영역은 부모관계 5문항, 교사관계 5문항, 또래관계 5문항이며 총 15문항이다.

둘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최보가, 전귀연(1993)이 연구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재구성한 권나현(2013)의 자아존중감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사회에서의 자아존중감의 3가지 하위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변인 당 5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적응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주소영, 이양희(2007)가 개발한 아동용 적응유연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주소영, 이양희(2007)의 척도는 부정적 감정의 인내, 자기효능감, 긍정적 지지관계, 통제력, 자발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개발하였다. 부정적 감정의 인내, 긍정적 지지관계, 통제력의 3가지 하위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각 4문항, 4문항, 5문항이며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이 개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 Young Panel Survey: KCYPS)척도의 학업에 대한 적응(학습활동)과 학업외의 적응(학교규칙)을 수정하였다. 학업에 대한 적응 5문항, 학업 외 적응 5문항이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상 네 가지 측정 도구 모두는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어휘 수준을 고려할 때, 다소 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특수교육 박사과정 3명, 특수교육전공 교수의 조언을 참고로 문장을 이해하기 쉬운 어휘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설문지 문항의

난이도와 문장의 진술 방식에 의한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모든 측정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써 1점(매우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의 표현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변수와 신뢰도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75)

구분	측정변수	문항	Cronbach's α
사회적 관계 (총 15문항)	부모관계	1,2,3,4,5	.868
	또래관계	6,7,8,9,10	.850
	교사관계	11,12,13,14,15	.873
자아존중감 (총 15문항)	사회에서의 자아존중감	1,2,3,4,5	.924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6,7,8,9,10	.900
	가정적 자아존중감	11,12,13,14,15	.942
적응유연성 (총 13문항)	부정적 감정의 인내	4,9,11,12	.821
	긍정적 지지관계	3,5,8,10	.911
	통제력	1,2,6,7,13	.920
학교생활적응 (총 10문항)	학업에 대한 적응	1,2,3,4,5	.881
	학업 외 적응	6,7,8,9,10	.864

5.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변수인 사회적 관계, 적응유연성,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변수 간 공분산 계산에 의해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0.004~0.792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관계, 적응유연성,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개념에 대한 평균분산추출지수(AVE) 값이 0.627을 초과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구성 개념들은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모든 측정항목의 집중타당성과 내적일관성이 성립되었으며, 판별타당성 및 법칙타당성도 성립이 되어 제거된 항목을 제외한 본 연구의 측정항목은 개념타당성과 신뢰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설문 조사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23.0 프로그램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배경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초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둘째,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 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다. 넷째, 학급별(중학교, 고등학교), 배치유형별(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구조적 관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 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배경변인별 차이 검증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성별, 학교 급별에 따라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학교생활적응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사회적 관계	남학생	221	3.11	.489	-13.938***	.000
	여학생	154	3.81	.467		
자아존중감	남학생	221	2.36	.623	-5.576***	.000
	여학생	154	2.79	.851		
적응유연성	남학생	221	3.46	.652	-7.193***	.000
	여학생	154	3.93	.557		
학교생활적응	남학생	221	3.01	.564	-7.802***	.000
	여학생	154	3.51	.685		

*** $p < .001$, ** $p < .01$, * $p < .05$

분석결과,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라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 유연성, 학교생활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관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t=-13.938, p<.001$), 여학생($M=3.81$)이 남학생($M=3.11$)보다 사회적 관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자아 존중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5.576, p<.001$), 여학생($M=2.79$)이 남학생($M=2.36$)보다 자아존중감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유연성은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t=-7.193, p<.001$), 여학생($M=3.93$)이 남학생($M=3.46$) 보다 적응유연성 수준이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적응은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t=-7.802, p<.001$), 여학생($M=3.51$) 이 남학생($M=3.01$) 보다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 학교 급에 따른 차이 검증

지적장애 중·고등학생들의 학교 급에 따른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 -test를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학교 급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사회적 관계	중학교	184	3.38	.617	-.543	.587
	고등학교	191	3.41	.567		
자아존중감	중학교	184	2.61	.787	1.802	.072
	고등학교	191	2.47	.716		
적응유연성	중학교	184	3.55	.669	-3.125**	.002
	고등학교	191	3.76	.627		
학교생활적응	중학교	184	3.20	.697	-.373	.709
	고등학교	191	3.23	.632		

*** $p<.001$, ** $p<.01$, * $p<.05$

분석결과,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학교 급에 따른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적응유연성 변인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학교 급에 따라 적응 유연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125, p<.01$). 학교 급 중에서도 고등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 중·고등학생($M=3.76$)이 중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 중·고등학생 ($M=3.55$)보다 적응유연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은 이론 모델(structural model)과 측정 모델(measurement model)이며, 이론 모델(structural model)은 다시 외생변수와 내생변수로 구분된다. 본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이론변수는 총 4개이며, 외생변수는 1개로 영향을 주는 변수인 사회적 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생변수는 3개로 외생변수에 영향을 받는 변수인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학교생활적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주효과 가설이 검정되었는데, AMOS 23.0을 이용하여 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분석에는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이 이용되었으며 최우도 추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의한 추정법이 이용되었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χ^2 값과 함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모형의 공분산행렬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절대적합도 지수와 연구모형이 영모형(null model)보다 얼마나 잘 측정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인 증분적합도 지수인 RMR, GFI, AGFI, IFI, TLI, CFI, RMSEA 지수를 함께 살펴보았다(우종필, 2012).

1) 연구모형 적합도 분석 및 구조모형 검증결과

본 연구에 이용된 연구단위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215.115(p=0.000, df=34)$, RMR=.049, GFI=.903, AGFI=.811, IFI=.912, TLI=.857, CFI=.911, RMSEA=.119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비교적 양호한 기준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구가설에 대한 연구모형 적합도

$\chi^2(p)$	df	RMR	GFI	AGFI	IFI	TLI	CFI	RMSEA
215.115 (p=0.000)	34	.049	.903	.811	.912	.857	.911	.119

본 연구의 구조모형 검증결과는 다음 <표 6> 및 [그림 3]과 같으며, 그 설명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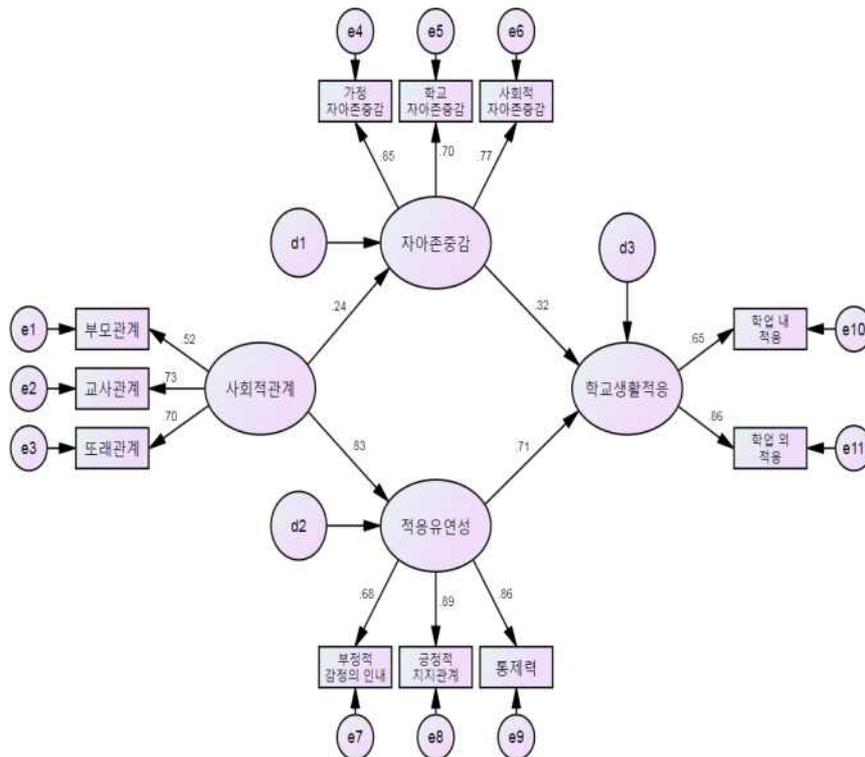
‘사회적 관계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관계(표준화계수=.244, t -값=3.738, $p<.001$)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사회적 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설 ‘사회적 관계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사회적 관계는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관계(표준화계수=.828, t -값=8.034, $p<.001$)는 적응유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사회적 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적응유연성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설 ‘사회적 관계는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표 6> 구조모형 분석결과

경로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value	p
사회적 관계 → 자아존중감	.244	.103	3.738***	.000
사회적 관계 → 적응유연성	.828	.107	8.034***	.000
자아존중감 → 학교생활적응	.322	.034	6.105***	.000
적응유연성 → 학교생활적응	.707	.077	9.078***	.000

*** $p<.001$, ** $p<.01$, * $p<.05$



[그림 3] 구조모형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표준화계수=.322, t -값=6.105, $p<.001$)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설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적응유연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적응유연성(표준화계수=.707, t -값=9.078, $p<.001$)은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적응유연성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설 ‘적응유연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각 경로 간 영향을 미치는 강도는 사회적 관계가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적응유연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사회적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순서로 나타났다.

2) 각 변수 간의 영향 관계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하위 변인인 부모관계, 교사관계,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의 하위 변인인 가정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의 하위 변인인 부정적 감정의 인내, 긍정적지지 관계, 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의 하위 변인인 학업 내 적응, 학업 외 적응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7> 및 아래와 같다.

사회적 관계의 하위 요인들이 자아존중감의 하위 영역인 가정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 분석 결과, 부모관계($\beta = .303$, $t = 4.814$, $p < .001$), 교사관계($\beta = .245$, $t = 4.620$, $p < .001$), 또래관계($\beta = .218$, $t = 3.457$, $p < .001$)는 가정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관계가 가정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관계의 하위 요인들이 자아존중감의 하위 영역인 학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 분석 결과, 사회적 관계의 하위 요인들 중, 부모관계($\beta = .132$, $t = 2.051$, $p < .05$), 교사관계($\beta = .224$, $t = 4.133$, $p < .001$)는 학교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 관계가 학교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의 하위 요인들이 자아존중감의 하위 영역인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 분석 결과, 사회적 관계의 하위 요인들 중, 부모관계($\beta = .265$, $t = 4.969$, $p < .001$), 교사관계($\beta = .186$, $t = 2.932$, $p < .01$), 또래관계($\beta = .165$, $t = 2.599$, $p < .05$)는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관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각 변수 간 영향 관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화 β	t	p	비고
부모관계	→ 가정 자아존중감	.303	4.814***	.000	$R^2 = .105$, 수정된 $R^2 = .098$, $F = 14.508$ (df1=3, df2=371), $p = .000$ DW=1.664
교사관계	→ 가정 자아존중감	.245	4.620***	.000	
또래관계	→ 가정 자아존중감	.218	3.457***	.001	
부모관계	→ 학교 자아존중감	.132	2.051*	.041	$R^2 = .062$, 수정된 $R^2 = .055$, $F = 8.232$ (df1=3, df2=371), $p = .000$ DW=1.756
교사관계	→ 학교 자아존중감	.224	4.133***	.000	
또래관계	→ 학교 자아존중감	.126	1.947	.052	
부모관계	→ 사회 자아존중감	.265	4.969***	.000	$R^2 = .091$, 수정된 $R^2 = .084$, $F = 12.424$ (df1=3, df2=371), $p = .000$ DW=1.846
교사관계	→ 사회 자아존중감	.186	2.932**	.004	
또래관계	→ 사회 자아존중감	.165	2.599*	.010	
부모관계	→ 부정적 감정의 인내	.099	2.226*	.027	$R^2 = .373$, 수정된 $R^2 = .368$, $F = 73.438$ (df1=3, df2=371), $p = .000$ DW=1.880
교사관계	→ 부정적 감정의 인내	.425	8.068***	.000	
또래관계	→ 부정적 감정의 인내	.196	3.719***	.000	
부모관계	→ 긍정적 지지관계	.319	6.897***	.000	$R^2 = .316$, 수정된 $R^2 = .311$, $F = 57.208$ (df1=3, df2=371), $p = .000$ DW=1.704
교사관계	→ 긍정적 지지관계	.190	3.457***	.001	
또래관계	→ 긍정적 지지관계	.209	3.794***	.000	
부모관계	→ 통제력	.245	5.237***	.000	$R^2 = .300$, 수정된 $R^2 = .294$, $F = 52.929$ (df1=3, df2=371), $p = .000$ DW=1.791
교사관계	→ 통제력	.343	6.151***	.000	
또래관계	→ 통제력	.097	1.734	.084	
가정 자아존중감	→ 학업 내 적응	.141	3.163**	.002	$R^2 = .080$, 수정된 $R^2 = .073$, $F = 10.776$ (df1=3, df2=371), $p = .000$ DW=1.790
학교 자아존중감	→ 학업 내 적응	.250	4.709***	.000	
사회 자아존중감	→ 학업 내 적응	.345	6.488***	.000	
가정 자아존중감	→ 학업 외 적응	.131	1.859	.064	$R^2 = .145$, 수정된 $R^2 = .138$, $F = 21.033$ (df1=3, df2=371), $p = .000$ DW=1.776
학교 자아존중감	→ 학업 외 적응	.037	.587	.558	
사회 자아존중감	→ 학업 외 적응	.258	3.926***	.000	
부정적 감정의 인내	→ 학업 내 적응	.215	3.581***	.000	$R^2 = .186$, 수정된 $R^2 = .179$, $F = 28.186$ (df1=3, df2=371), $p = .000$ DW=1.783
긍정적 지지관계	→ 학업 내 적응	.380	4.905***	.000	
통제력	→ 학업 내 적응	.129	1.568	.118	
부정적 감정의 인내	→ 학업 외 적응	.151	2.964**	.003	$R^2 = .410$, 수정된 $R^2 = .406$, $F = 86.086$ (df1=3, df2=371), $p = .000$ DW=1.832
긍정적 지지관계	→ 학업 외 적응	.521	7.904***	.000	
통제력	→ 학업 외 적응	.028	.399	.690	

*** $p < .001$, ** $p < .01$, * $p < .05$

또한 사회적 관계의 하위 요인들이 적응유연성의 하위 영역인 부정적 감정의 인내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 분석 결과, 부모관계($\beta = .099$, $t = 2.226$, $p < .05$), 교사관계($\beta = .425$, $t = 8.068$, $p < .001$), 또래관계($\beta = .196$, $t = 3.719$, $p < .001$)는 부정적 감정의 인내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관계가 부정적 감정의

인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관계의 하위 요인들이 적응유연성의 하위 영역인 긍정적 지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 분석 결과, 부모관계($\beta = .319, t = 6.897, p < .001$), 교사관계($\beta = .190, t = 3.457, p < .001$), 또래관계($\beta = .209, t = 3.794, p < .001$)는 긍정적 지지관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관계가 긍정적 지지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의 하위 요인들이 적응유연성의 하위 영역인 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 분석 결과, 부모관계($\beta = .245, t = 5.237, p < .001$), 교사관계($\beta = .343, t = 6.151, p < .001$)는 통제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관계가 통제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들이 학교생활적응의 하위 영역인 학업 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자아존중감($\beta = .186, t = 2.727, p < .01$)은 학업 내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학업 내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들이 학교생활적응의 하위 영역인 학업 외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자아존중감($\beta = .258, t = 3.926, p < .001$)은 학업 외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학업 외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적응유연성의 하위 요인들이 학교생활적응의 하위 영역인 학업 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 부정적 감정의 인내($\beta = .215, t = 3.581, p < .001$), 긍정적 지지관계($\beta = .380, t = 4.905, p < .001$)는 학업 내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지지관계가 학업 내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응유연성의 하위 요인들이 학교생활적응의 하위 영역인 학업 외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 부정적 감정의 인내($\beta = .151, t = 2.964, p < .01$), 긍정적 지지관계($\beta = .521, t = 7.904, p < .001$)는 학업 외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지지관계가 학업 외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 급별, 배치유형별 구조적 관계 차이

학교 급별, 배치유형별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학교생활적응의 구조적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학교 급으로 나누어진 집단인 중학교 집단과 고등학교 집단 그리고 배치유형으로 나누어진 특수학교 집단, 특수학급 집단, 일반학급(완전통합)집단에 대해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학교생활 적응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각 경로의 수치를 비교 분석 하고자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1) 학교 급별 구조적 관계 차이

학교 급별 집단 간 구조적 관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다중집단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학교 급별 집단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결과

Path Constrained		χ^2	df	$\Delta\chi^2/df$	Sig.
Free Model		271.058	68	-	-
사회적 관계	→ 자아존중감	274.094	69	3.036/1	No Sig.
사회적 관계	→ 적응유연성	275.064	69	4.006/1	Sig.
자아존중감	→ 학교생활적응	277.428	69	6.370/1	Sig.
적응유연성	→ 학교생활적응	278.210	69	7.152/1	Sig.

분석결과를 보면 중학교 집단과 고등학교 집단에서 [사회적 관계 → 적응유연성], [자아존중감 → 학교생활적응], [적응유연성 → 학교생활적응]으로 가는 경로에서 χ^2 의한 차이(자유도(df)가 1일 때, $\Delta\chi^2$ 수치가 3.84 보다 크다면 한 쪽 집단이 더 크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관계 → 적응유연성]의 경로에서는 중학교 집단의 경로($\gamma=.791$)보다 고등학교 집단의 경로($\gamma=.869$)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Delta\chi^2/df=4.006$).

[자아존중감 → 학교생활적응]의 경로에서는 중학교 집단의 경로($\gamma=.375$)가 고등학교 집단의 경로($\gamma=.26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Delta\chi^2/df=6.370$).

[적응유연성 → 학교생활적응]의 경로에서는 중학교 집단의 경로($\gamma=.637$)보다 고등학교 집단의 경로($\gamma=.757$)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Delta\chi^2/df=7.152$).

2) 배치유형별 구조적 관계 차이

배치유형별 집단 간 구조적 관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다중집단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일반학급 집단, 특수학급 집단, 특수학교 집단에서 [사회적 관계 → 자아존중감], [사회적 관계 → 적응유연성], [자아존중감 → 학교생활적응], [적응유연성 → 학교생활적응]으로 가는 경로에서 χ^2 의한 차이(자유도(df)가 2일 때, $\Delta\chi^2$ 수치가 5.99 보다 크다면 한 쪽 집단이 더 크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관계 → 자아존중감]의 경로에서는 특수학교 집단의 경로($\gamma=.214$)보다 일반학급 집단의 경로($\gamma=.30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Delta\chi^2/df=6.797$).

[사회적 관계 → 적응유연성]의 경로에서는 일반학급집단의 경로($\gamma=.874$), 특수학급 집단의 경로($\gamma=.796$), 특수학교 집단의 경로($\gamma=.794$)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Delta\chi^2/df=7.150$).

[자아존중감 → 학교생활적응]의 경로에서는 특수학교 집단의 경로($\gamma=.421$), 일반학급집단의 경로($\gamma=.284$), 특수학급 집단의 경로($\gamma=.196$)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Delta\chi^2/df=6.375$).

[적응유연성 → 학교생활적응]의 경로에서는 일반학급집단의 경로($\gamma=.815$), 특수학급 집단의 경로($\gamma=.743$), 특수학교 집단의 경로($\gamma=.640$)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Delta\chi^2/df=8.750$).

<표 9> 배치유형별 집단 간 다중집단분석 결과

Path		Constrained	χ^2	df	$\Delta\chi^2/df$	Sig.
Free Model			313.059	102	-	-
사회적 관계	→	자아존중감	319.856	104	6.797	Sig.
사회적 관계	→	적응유연성	320.209	104	7.150	Sig.
자아존중감	→	학교생활적응	319.434	104	6.375	Sig.
적응유연성	→	학교생활적응	321.809	104	8.750	Sig.

IV. 논의 및 제언

1. 배경변인별 차이에 대한 논의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배경변인별(성별, 학교 급별)에 따른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차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학교생활적응의 차이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밝힌 송순, 오선영(2013)의 연구를 지지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학교생활적응에서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별의 비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조절과 진로탐색 능력이 높으며(이옥인, 임양미, 2017), 학교 적응도에서도 여학생의 수준이 높다는 이경복(2006)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와 같이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학교생활적응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원인은 국내외를 걸쳐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해서 차이 발생의 근거를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둘째, 학교 급별에 따른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학교생활적응의 차이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각각의 변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와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적응유연성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고등학교 집단이 중학교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유연성이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문은식(200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성별, 학교 급별에 따른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학교생활적응은 차이가 있으며 여학생 집단보다 남학생 집단에서 더 낮게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남학생 집단에서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학교생활 적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의 특성을 살린 4가지 요인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실제적인 지원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가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 사회적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관계가 적응유연성에 적응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적응유연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사회적 관계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사와의 관계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이하리, 이영선(2015)의 연구와 친구관계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최정미, 김미란, 2003), 부모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원만한 관계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을 밝힌 김반야(2017)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특히 사회적 관계의 부모관계가 자아존중감의 가정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교사관계가 학교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학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사와 지적장애 중·고등학생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위한 인식의 변화와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사회적 관계는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 요인인 부모, 교사, 학급친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과 관련한 적응유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정효선(2007)의 연구를 지지한다. 특히 사회적 관계에서 부모 관계는 적응유연성의 긍정적 지지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교사관계는 부정적 감정의 인내와 통제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원만한 의사소통으로 지속적인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체계를 중심으로 이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부정적 감정에서 인내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에 교사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에서 교사는 수업과 관계된 전문적인 역할도 필요하지만 학생들과 공감하고 신뢰감을 형성하는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총체적인 측면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중·고등학생의 행복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송경아(2008)는 일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다른 예측변인보다도 강력하게 자아존중감이 중·고등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적응에 필수적임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지훈, 신진숙(2010)은 지적장애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이유가 성공적인 기회보다는 실패의 경험이 많으며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경험들 때문에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학업과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가져 오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도 크지만 특히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인 학업 내 적응과 학업 외 적응 모두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물리적인 환경과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학교교육에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여러 교과와 관련된 여러 단원에 적용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적응유연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응유연성이 높은 경우 학교생활적응도와 학교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일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현정 외(2011)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적응유연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교사와 학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우 관계를 통하여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높은 적응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특히 적응유연성에서 긍정적 지지관계가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인 학업 내 적응과 학업 외 적응에서 모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지지관계가 다른 어떠한 변인들 보다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강력한 요인임을 시사하며 부정적 감정의 인내, 통제력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이 겪게 되는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긍정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3. 학교 급별, 배치유형별 구조적 관계의 차이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학교 급별, 배치유형별 구조적 관계의 차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급별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와 적응유연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에서 모두 고등학교 집단이 중학교 집단보다 더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고등학교 학생이 중학교 학생 보다 사교육에 소비하는 시간이 많고, 고등학교 이후의 진학이나 직장의 취업이라는 학업적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이미화, 2001), 더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요구되며 이에 따른 높은 적응유연성을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에게는 내적인 요인보다 적응유연성이라는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더 필요하며 직접적으로 직면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에서는 중학교 집단이 고등학교 집단보다 더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에 대한 내적인 신념과 가치적인 평가로 고등학교 집단보다는 발달연령이 더 어린 중학교 집단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며, 최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에서 초기 청소년기인 초등학교 고학년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전란영, 김희화(2016)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사회적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에서는 수치상으로는 고등학교

집단이 중학교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고등학교 집단이 중학교 집단보다 더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학교 집단이 고등학교 집단보다 사회적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더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신명옥, 장덕희(2017)의 연구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일반 중·고등학생은 더 낮은 연령인 중학교 집단에서 사회적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더 영향을 미치지만,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경우 장애라는 특성으로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도움을 여전히 받고 있으며(주성용, 2011), 학교환경에서도 교사와 또래의 인식과 태도에 의해 스스로의 가치감을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적 배치유형별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지금까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배치 유형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김원경, 한현민, 2009), 교육적 배치 현황에 대한 국제 및 국내의 비교 연구도 이루어져(김지연, 2017), 교육적 배치 유형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 사회적 관계가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 적응유연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에서 모두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집단의 경로 순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학급에서의 긍정적이고 유기적인 사회적 관계가 다른 배치유형보다 자아존중감이라는 개인 내적인 영역과 적응유연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며(정소연, 2009; 2011), 이는 일반학급과 같이 통합된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반학급 교사를 위한 지속적인 연수와 또래와의 관계 향상 프로그램이나 혹은 관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방법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응답 회수된 결과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변인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 개인을 추적하는 종단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국외의 선행연구(Kappos et al., 2007)의 경우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추적 연구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 호르몬의 영향과 함께 제2차 성징이 빨라지고 있으며 사춘기도 이전보다 빠른 시기에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초기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 이후의 학생을 청소년의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을 포함하지 않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을 포함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으로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학교생활적응을 대상으로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여겨지는 다른 변인들이 많다. 따라서 학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업동기나 장애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행동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한 연구의 검토가 계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이러한 경로에서 어떠한 변인이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밝히는 매개변인에 대한 연구도 추후 실시되어 보다 다각적으로 결과를 도출해보는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7). **특수교육통계**. 충남: 국립특수교육원.
- 권나현 (2013). 학급 풍토가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혁, 김예성 (2008). 가족빈곤이 아동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국생활과학지**, 17(2), 847-859.
- 김기순 (2017). 장애아동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동방문화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희, 박승희 (2008).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사회적지지 지각과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의 학교급별 비교. **특수교육**, 7(1), 148-172.
- 김반야 (2017).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순응, 저항, 화응 무시 의사소통과 의사소통량이 여자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5(1), 5-33.
- 김선아 (2012). 남녀중학생의 사회적 관계(부모, 또래, 교사관계)와 행복감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0(4), 15-26.
- 김영춘, 정민숙 (2012).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3, 51-70.
- 김원경, 한현민 (2009). 2007년 특수교육법상 배치기준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 배치의 적정성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4(2), 23-45.
- 김지연 (2017).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 배치현황 및 국제 및 국내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9(1), 111-136.

- 나용기, 김기룡, 김삼섭 (2012). 정신지체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직업준비도와의 관계. **장애와 고용**, 22(4), 53-75.
- 노현주, 이동영 (2011). 특수학교 시각장애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6, 85-108.
- 문은식 (2011). 청소년의 학교 생활 적응 행동에 관련 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혜정, 황혜정 (2005).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3), 1-27.
- 서지훈, 신진숙 (2010).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고등학생의 자아 정체감과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2), 69-91.
- 송경아 (200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의사소통, 친구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순, 오선영 (2013).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및 모-자녀간 의사소통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8(1), 93-103.
- 신명옥, 장덕희 (2017).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생태 체계적 관점의 다중매개효과: 학교급별 다중집단분석. **학교사회복지**, 39, 259-289.
- 신진숙 (2010). **지적장애아 교육**. 경기 파주: 양서원.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유다미 (2015).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 사회적지지 및 학교적응 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현정, 유일영, 오의금 (2011). 학령기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 문제행동과 적응유연성과의 관계. **아동간호학회**, 17(3), 174-180.
- 이경복 (2006). 장애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화 (2011). 사회적 지지가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옥인, 임양미 (2017). 지적장애 중·고등학생의 자기조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탐색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장애정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0(1), 29-48.
- 이원령 (2017). 지적장애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6(2), 87-105.
- 이하리, 이영선(2015). 청소년의 교사·또래 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인문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3(2), 461-486.
- 장현민, 허유성 (2016). 자기결정력 강화 주말 여가 중재가 특수학급 지적장애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연구**, 18(4), 107-128.
- 전란영, 김희화 (2016).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 및 과잉간섭적 양육이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4(2), 57-67.

- 전연이 (2006). 중학생의 집단따돌림과 사회적 기술,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소연 (2009). 장애청소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학교 특성 요인. **재활복지**, 13(2), 287-312.
- 정소연 (2011). 통합교육 및 학교환경특성이 자폐성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0(4), 79-101.
- 정효선 (2007). 학생청소년이 인지한 사회적 관계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성용 (2011). 무용동작치료가 지적장애 여자고등학생의 자기표현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소영, 이양희 (2007). 아동용 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초등학교 4-6학년용. **아동학회지**, 28(2), 91-113.
- 최보가, 전귀연 (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4.
- 최정미, 김미란 (2003). 청소년의 친구관계 특성과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373-39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5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 Young Panel Survey: KCYPS)**.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l-Yagon, M. (2013). Child-mother and child-father attachment security: Links to internalizing adjustment among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5, 119-131.
- Bronfenbrenner, U. (2005). *Making human beings human: Bioecological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Thousand Oaks, CA: SAGE.
- Kappos, L., Freedman, M. S., Polman, C. H., Edan, G., Hartung, H. P., Miller, D. H., Montalban, X., Barkhof, F., Radu, E. W., & Bauer, L. (2007). Effect of early versus delayed interferon beta-1b treatment on disability after a first clinical event suggestive of multiple sclerosis: a 3-year follow-up analysis of the BENEFIT study. *The Lancet*, 370, 389-397.
- Lerner, J. V., Phelps, E., Forman, Y., & Bowers, E. P. (2009). Positive youth development. In R. M. Lerner & L. Steinberg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1, 404-434.
- Wang, M. T., & Eccles, J. S. (2012). Social support matters: Longitudinal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ree dimensions of school engagement from middle to high school. *Child Development*, 83, 877-895.

Structural Relations among Social Relationships,
Self-esteem, Resilience and School Life Adaptation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Lee, Eun-Young

Gyeongnam Eungwang School

Shin, Jin-Sook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social relationships, self-esteem, resilience and school life adaptation which are expected to influence on school life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For this, a questionnaire targeting 375 mentally-handicapped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hree cities and provinces was carried out, and the collected questionnaire data was used for the basic statistics analysis and the structure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result showed that social relationship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self-esteem and resilience, and self-esteem and resilience did so on school life adaptation. In terms of the degree of influence on each course, the course of social relationships' influencing on resilience was the highest, and followed by the one of resilience's influencing on school life adaptation, the one of self-esteem's influencing on school life adaptation and the one of social relationships' influencing on self-esteem. With regard to the structural relations by clas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the courses except the one of social relationships' influencing on self-esteem. In terms of the structural relations by arrangement type, all the course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This study suggested a proposal for a follow-up study based on this result and with discussion.

Key Words

: Intellectual Disabilities, Social Relationships, Self-esteem, Resilience,
School Life Adaptation

논문 접수: 2018. 02. 07 심사 시작: 2018. 02. 07 게재 확정: 2018. 03. 29